

##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전 프로야구선수 이만수

프로야구 최고의 강타자로 명성을 날리던 이만수(42·아멘교회)씨의 인생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코스를 좀 수정했을뿐이다. 이만수씨가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훌쩍 한국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싱글A팀 코치로 제2의 삶을 개척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야구와 교회, 가정밖에 모르던 그가 낯설고 물 설은 미국으로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동료와 가족에게 한 마디를 남기고 혼자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 ‘할렐루야야구팀’을 만들어 전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외롭고 험한 길을 택했다. 오전에는 자동차로 두 시간을 달려가 영어를 배우고 휴게소에서 햄버거로 배를 채웠고, 오후에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팀에서 코치로 일했다. 구단은 그에게 주택과 자동차, 월 2천달러를 지급했다.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경이 닥칠 때마다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렸습니다. 꿈은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구단주 캐리씨의 집에 머물고 있다. 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실력도 갖췄다. 매일 오전 여섯시에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캐리씨는 깜짝 놀랐다.

“신앙인 이만수를 존경한다. 너처럼 성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천은 처음본다”

그는 지금 미국의 여러 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다. 탁월한 타격이론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것. 그가 미국에서 맨 처음 타격코치 테스트를 받을 때는 다소 무시를 당했다. 배팅볼 투수가 던져주는 열 개의 공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열 개중 일곱 개를 답장 너머로 날려버렸다.

“한국의 베이브 루스가 왔다. 가공할 타력을 갖고 있다” 지역신문은 이씨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날부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왜소한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힘만 지닌 것이 아니다. 30년동안 야구를 하며 익힌 기술을 모두 노트에 기록해 두었을 정도로 꼼꼼한 성격을 가졌다.

그는 지난해 말 귀국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무료로 야구교실을 열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구단과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인사도 드렸다. 특히 아멘교회 김명동 목사를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목사는 이씨가 은퇴한 후 방황하고 있을 때 격려해 준 사람이다.

“이만수 집사, 꿈을 크게 가지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삼성의 선수가 아니오. 미련을 버리고 새 길을 찾으시오” 이 격려에 힘을 얻어 미국행을 결심했다. 자신에게 복음을 심어준 아내 이신화씨도 그의 제안에 선뜻 동의해 주었다. 이씨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코치수업을 받는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코치가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야구와 이만수. 두 단어는 동의어다. 그는 프로야구의 역사다. 그는 프로야구 첫 홈런과 첫 타점의 주인공이다. 그가 84년에 수립한 홈런 타점 타율 등 타격 3관왕은 아무도 넘보지 못한 난공불락의 기록이다. 2백52개의 홈런과 1백20개의 히트바이피쳐 기록도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금 선교라는 끝인지점을 향해 야구라는 트랙을 달리고 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갈보리교회'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3권 2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7월 8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씩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

작년 우리교회에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신상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

‘개신교계에서 신앙이 높은 서울 이문동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가 17일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교인 5000여명인 동안교회 목회를 다른 목사에게 넘기고 새로운

개척교회를 만들겠다고 선언, 교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목사는 이날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건강한 교회’란 주제의 설교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편안한 목회활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김목사의 주일 설교내용 요약.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장년 출석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주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게시판에 좋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예배에 찬양이 약하고 수요기도회에 기도가 약하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같은 약점과 문제점이 즐비한데도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참으로 바보같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저’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대개 담임목사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패턴을 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인하세요. 그 줄을 끊어야만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삽니다. 91년 12월 1일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 저는 바른 목회를 위해 나름대로 생명을 걸고 피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한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교회에 사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제 동안교회는 싸움의 성공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따먹는 잔칫집과 같아졌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잔칫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칫상을 받고 싶습니다. 동안교회는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속기 쉽고 동안교회도 속기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동안교회의 목회를 10년으로 정리하고 교회를 분립 개척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새로운 싸움을 싸워보려고 합니다’

갈보리 성도 여러분! 다음주일이면 벌써 창립2주년기념주일입니다. 우리도 한번 하늘 나라에서의 잔칫상을 바라보며 멋진 교회를 세워가야하지 않을까요?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눈이 멀면 더 이상 멋진교회의 길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해도, 성도가 좀 성에 안차도 부족함을 도와가며 세우는 건강하고 성숙하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5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9(시편 84)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19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노은숙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66:8-22(구 1048)	인 도 자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탈북자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김요엘 목사
찬 송 Hymn	355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7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7월1	김종건	정의령	최재학, 노은숙	김교섭, 김성국	김종건, 정희자
8	노은숙	조순정	김교섭, 정희자	김시욱, 김영길	박일영, 임혜자
15	박영태	지찬영	김시욱	김종건, 박영태	최윤호, 송정섭
22	박일영	최윤호	김영길, 신경화	박정자, 박일영	최재학, 정희자
29	박정자	최재학	김종건, 지찬영	변지웅, 이경석	박영태, 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학생, 청년부: 토요일 4:00

##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마태복음-누가복음(1):1명. 누가복음-요한복음:1명
- 교회창립주일: 다음주일은 교회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 항존직분자 선출: 7월 마지막 주일(29일)에 갖습니다.  
덕스러운 선거와 섬기는 직분자들의 피력을 위해 2주간 하루한끼금식기도에  
전 교우들의 참여바랍니다(기도참가표)
- 학생, 청년부 수련회  
\*일시: 7월 9일(월)-10일(화)  
\*장소: Peter Snell Youth Village, Wangaparaoa  
(09)424-5521, 025-296-0333
-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6기) 3,4회 공부: 등록교인 의무과정입니다  
\*일시: 7월 10일(화), 12일(목)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금년도 등록가정
-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시간 변경  
\*주일 11:50 - 12:30  
\*유치부장: 한은영 집사 교사: 인혜림 선생  
\*유, 초, 소년부장: 조순정 집사 교사: 김지은 선생
- 임시동역자회의를 오늘 Tea Time후 잠시 갖습니다.
- 등록하심을 교우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유종옥, 김선자 성도, 승훈(청년부), 재니(유치부).  
☎577-1021 ☒ 8 Manapouri Pl. Pakuranga
- 교우소식  
\*이사: 인치혁, 김정미 집사. ☎832-5833 ☒ 1 Zita Maria Dr. Massey.  
\*한국방문: 윤한나 집사. 14일(토)출국.  
\*호주이주: 전영로, 이현숙 성도, 혜영, 재관. 14일(토).  
하나님의 승리로운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인터넷강좌: 박영태 집사  
\*일시: 7월 13일(금) 저녁8시-10시. 장소: Cyber City 참가비: \$20

## ◆7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1일		구역예배(6일)
8일		식사교제, 청년, 학생부 수련회
15일	교회창립기념주일	임시동역자회의
22일		
29일	공동의회	교사기도회(3일)